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곽윤정, 이지혜*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Yoon Jung Gwak, Ji Hy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of Counseling, Sejo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참여동기 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사이버대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성인학습자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총 937명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 재학생의 학습참여동기 유형은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활동지향동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습참여동기, 삶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학년을 제외한 성별, 연령, 직업유무, 결혼유무,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활동지향동기 순서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성인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e subjects were 937 adult learners at one of the Cyber Universities in Seoul, Korea, who were over 20 years of 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was goal-oriented, followed by learning-oriented motivation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sex, age, occupation, marriage and major. Third,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hree types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in the order of life satisfaction, goal-oriented motivation, learning-oriented motivation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ult learners' quality of life and motivation to learn are very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Keywords : Adult learner, Cyber University,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학교로 출발한 이후

현재 총 21개 학교로 늘어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며 성인교육 시장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규모

*Corresponding Author : Ji-Hye Lee(Sejong Cyber Univ.)

Tel: +82-2-2204-8609 email: jihye79@sjcu.ac.kr

Received February 20, 2018

Revised April 3,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로 성장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질 관리, 학사운영의 만족도,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1,2].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사이버 대학 관련 196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 이중 가장 많은 연구 주제가 학습자에 관한 것(33%)이었다. 이처럼 학습자에 관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업성취, 학교에 대한 인식 등이 사이버 대학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의 질을 도모하고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그에측변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3]. 그 중에서도 학습만족도는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로 많은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1,2,4-11].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공만족도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12-19],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20,21].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사이버대 재학생과 일반대생의 전문직정체성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20]이나, 성인학습자의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1]을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가 미래의 진로와 직업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전공 관련 학업에 대한 만족도이다[14]. 김계현과 하혜숙[22]은 전공이 가지는 사회적 소속감을 포함한 학과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전공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중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도 전형유형, 전공계열, 전공 대학 소재지, 진로성숙도 등이 있었다 [13,22-24].

성인학습자인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학교교육 이후 한동안 학습을 중단하였다가 편입하거나 재입학 하였다. 그들은 이전 학교교육에 대한 실패 및 진로에 따른 좌절 경험, 중·장년기 발달단계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사이버대학의 성인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또한 사이버대 재학생들은 이전의 학습경험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학습 성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불안은 사이버대 재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28].

박안숙과 김혜경[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 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전공만족 중 수업만족(38%)이었다. 또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적극적인 학과참여와 낮은 자퇴율을 보였고[14],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과 적응도가 높아졌다[25-27]. 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자기주도적학습을 수행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가 크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20대 후반에서 주로 30-40대의 성인학습자가 대다수로, 이미 학업적령기를 지났으며, 그들 중 70%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1]. 온라인 수업은 성인학습자가 처한 환경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학습자 본인의 의지와 자율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가 학업 성과에 미칠 영향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크다[5]. 전공만족도와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선택의 동기가 중요했으며 [14,16] 여러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전공만족도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17,18,23].

이처럼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11,29-32], 사이버대 재학생의 학습참여동기와 학습만족도에 관한 연구[5,44]는 몇 차례 수행된 바가 있으나 학습참여동기와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몇몇 찾아볼 수 있었으나 주로 평생교육기관의 중장년층 학습자에 제한되어 있 있었다.

학습참여동기와 교육 만족도, 그리고 생활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로 예측해 볼 때, 학습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전공만족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참여동기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구특성학적 변인

에 따른 다양성 또한 확인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성인학습자가 ‘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개념이 동기이다. 성인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는 학습자 개개인의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24]. 그들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Houle[29]의 연구를 기점으로 한다. Houle은 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유형을 학습지향(learning-oriented), 목적지향(goal-oriented), 활동지향(activity-oriented) 동기로 분류하였다[30].

첫째, 학습지향형 학습자는 배우고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며 지적 호기심이나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참여하는 유형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학습활동은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지니며 각각의 학습활동이 지니는 의미의 총체가 참여동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31]. 그들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어 자신을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 교육은 특별활동이 아닌 매우 일상적인 일 중 하나이다[30].

둘째, 목적지향형 학습자는 지식과 기술의 전문적 향상이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한 직업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 유형의 학습동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나 학습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욕구 충족으로서 가장 구체적이며 명백하다[30]. 즉, 학습자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학습에 참여하며[5],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학습을 쉽게 중단하는 경향이 강하다[30].

셋째, 활동지향적인 학습자들은 특정 목표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참여한다[30]. 이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특정 내용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형성, 소속감의 형성, 단조로운 일상사로부터의 도피, 사회적 안정 및 참여,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기대, 대인관계 증진 등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또는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현실로부터 잠시 도피하기 위해 성인교육에 참여한다[31].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자 196명의 학습참여

동기와 학업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임효연과 이순민[5]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학습참여동기는 모두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습참여동기 수준은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동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이버대학 재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한 권정은[32]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참여동기유형은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동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학습참여동기유형 모두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목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 동기유형만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었다.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유형과 경험학습양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영아[30]에 따르면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유형별로 선호하는 경험학습양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습지향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목적지향형, 활동지향 순이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여성학습자 478명을 대상으로 참여동기가 학습몰입과 학습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정기범[31]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여성학습자의 세 가지 학습참여동기유형 모두 인지적 몰입과 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동기는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이었다.

학점은행제 등록 중년여성 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와 몰입에 대한 연구[33]에서는 학습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학습참여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풀타임 근무자들은 목표지향형 학습참여동기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습참여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는 학습지향형 학습참여동기가 학습몰입의 인지적 몰입과 정의적 몰입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는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1, 29]. 이상의 연구들로 살펴볼 수 있듯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유형은 학습자 내·외부의 여러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업성취와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라 할지라도 사이버대 재학생, 평생교육기관 수강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간의 학습참여동기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유형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대두로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 주

관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 달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성인들의 경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35].

성인학습자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편이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여주는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35].

실제로 중년여성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평생학습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36]. 비슷한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와 교육기관 특성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37].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 참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임옥자와 정민[35]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여성 노인에게는 활동지향 동기가 가장 강했고,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35]. 이와 유사한 결과가 김종식과 임왕규[3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60대 이상 노인 307명을 대상으로 참여동기와 교육만족 및 생활만족을 연구한 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또한 높았다[38]. 전주성과 김태종[39]의 중·노년기 여성 5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정서를 완화시켜주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40].

1.3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습동기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검증하고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교 적응과 만족도 향상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유형, 삶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에는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에서 2017학년 1, 2학기에 개설된 심리학 관련 전공 및 교양 수업에 참가한 전 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개 학부에 소속된 95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93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78	40.3%
	Female	559	59.7%
Grade	Freshman	215	22.9%
	Sophomore	116	12.4%
	Junior	260	27.7%
	Senior	320	34.2%
	Part-time	26	2.8%
Age	10s	6	0.6%
	20s	365	39.0%
	30s	285	30.4%
	40s	171	18.2%
	50s	97	10.4%
	60s	13	1.4%
Occupation	Yes	191	20.4%
	No	746	79.6%
Marriage	Yes	371	39.6%
	No	540	57.6%
	Non-response	26	2.8%
Child	Yes	316	33.7%
	No	605	64.6%
	Non-response	16	1.7%
All		937	100.0

2.2 측정도구

학습참여동기는 Houle[29]의 연구에 기초한 차윤지[41]의 교육참여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인

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활동지향형 동기, 목적지향형 동기, 학습지향형 동기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각각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 동기유형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7, 목적지향동기가 .82, 학습지향동기가 .8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와 Braskamp, Wise & Henstler(1979)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 조사지에 기반하여 하혜숙(2000)이 개발한 학과만족도 척도 중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 수준과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소속한 전공을 평가함으로써 순수한 전공만족도만을 묻는 문항인 일반만족요인 6개 문항과 인식만족요인 7개 문항을 택하여 총 13문항으로 전공만족도로 측정하였다[24].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와 동료들이(1985)[42]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신뢰도는 .88 이었다.

2.3 자료 분석 절차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동기,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전공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집단 간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학습참여동기,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학습참여동기 유형별 총합은 최저 5점에서 최대 25점으로 목적지향동기(19.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지향동기(18.43)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활동지향동기(17.19)가 가장 낮았다(Table 2). 이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에 대한 만족과 목표지향동기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활동지향동기와 전공만족도($r = .330, p < .01$), 목표지향동기와 전공만족도($r = .403, p < .01$), 학습지향동기와 전공만족도($r = .439, p < .01$),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r = .383, p < .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활동지향동기가 높을수록, 목표지향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지향동기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상관성은 위와 같이 적합한 수준이었다.

3.2 차이검증

3.2.1 학습참여동기

학습참여동기의 세 하위영역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T 검정과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3). 먼저 인구특성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학습참여동기 유형을 살펴보았다. 각 동기유형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남성, 여성, 직장인과 비직장인, 기혼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학습자와 없는 학습자 모두 목적지향동기가 가장 높았고 활동지향동기가 가장 낮았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학습자 집단에 한해 활동지향동기(19.79)가 가장 높았고 학습지향동기(17.67)가 가장 낮았다. 활동지향동기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결혼하지 않은 학습자 집단(19.79)이었고, 학습지향동기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 집단(20.79)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기유형은 목표지향동기와 학습지향동기유형으로 여성이 더 높은 목표지향동기를 보였다.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기유형은 활동지향동기유형으로 직업이 있는 학습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기유형은 활동지향동기유형과 학습지향동기유형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M	SD	1	2	3	4	5
1. Activity-oriented motivation	17.19	4.26	-				
2. Goal-oriented motivation	19.75	3.87	.431**	-			
3. Learning-oriented motivation	18.40	4.56	.590**	.567**	-		
4. Major satisfaction	50.67	8.91	.330**	.403**	.439**	-	
5. Life satisfaction	21.20	7.05	.199**	.054	.277**	.383**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Difference Analysis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ctivity-oriented motivation				Goal-oriented motivation				Learning-oriented motivation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17.35	4.64	-.96	.33	19.12	4.00	4.11	.00**	17.94	4.48	2.72	.00***
	Female	17.08	3.97			20.16	3.68			18.77	4.61		
Occupation	Yes	17.42	4.27	3.25	.00***	19.72	3.87	-.31	.75	18.84	4.48	.61	.54
	No	16.30	4.07			19.82	3.74			18.25	4.92		
Marriage	Yes	17.80	3.97	3.57	.00***	19.98	3.60	1.66	.09	19.55	4.20	6.24	.00***
	No	19.79	4.36			19.55	3.98			17.67	4.65		
Child	Yes	17.86	3.93	3.26	.00***	20.05	3.59	1.77	.07	19.82	3.94	6.69	.00***
	No	16.90	4.34			19.58	3.94			17.75	4.70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16.59 ^a	4.24	4.62	.00***	19.53	4.09	1.65	.17	17.11 ^a	4.55	22.33	.00***
	30s	17.58 ^b	4.43			19.73	3.66			18.86 ^b	4.40		
	40s	17.35 ^b	4.11			19.85	3.87			19.08 ^b	4.70		
	50s	18.04 ^b	3.75			20.49	3.38			20.79 ^c	3.08		

* $p < .05$. ** $p < .01$. *** $p < .001$.

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활동지향동기가 낮고 학습지향동기가 높았다. 자녀가 있는 학습자는 자녀가 없는 학습자보다 활동지향동기와 학습지향동기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인 동기유형은 활동지향동기와 학습지향동기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20대 학습자가 30대, 40대, 50대 학습자보다 활동지향동기가 낮았다(a<b). 20대 학습자의 학습지향동기 수준 또한 .001 유의수준에서 30대, 40대, 50대에 비해 낮았으며 이중 50대의 학습지향동기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a<b<c).

3.2.2 삶에 대한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성별, 직업유무, 결혼여부, 그리고 자녀유무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Table 4).

남성이 여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직업이 있는 학습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직업이 없는 학습

자 보다 높았다. 결혼을 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자녀가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기혼자에 한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3 전공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의 전공만족도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 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5). 여성이 남성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결혼을 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기혼자에 한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20대의 전공만족도가 30대, 40대, 50대보다 낮았다(a<b). 직업유무와 학년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4. Difference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test	
				t	P
Gender	Male	22.06	6.84	-3.04	.00***
	Female	20.62	7.21		
Occupation	Yes	21.81	6.98	5.30	.00***
	No	18.79	7.06		
Marriage	Yes	22.81	6.89	5.77	.00***
	No	20.09	7.02		
Child	Yes	22.91	6.83	5.31	.00***
	No	20.33	7.07		
Classification		M	SD	ANOVA	
				F	P
Age	20s	20.77	6.90	1.16	.32
	30s	21.21	7.13		
	40s	21.73	6.92		
	50s	21.97	7.3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Difference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test	
				t	P
Gender	Male	49.92	9.01	1.98	.04*
	Female	51.09	8.74		
Occupation	Yes	50.75	8.76	.88	.37
	No	50.11	9.27		
Marriage	Yes	51.79	8.89	3.29	.00***
	No	49.83	8.69		
Child	Yes	52.06	9.03	3.42	.00***
	No	49.98	8.61		
Classification		M	SD	ANOVA	
				F	P
Age	20s	49.46 ^a	8.72	5.016	.00***
	30s	51.14 ^b	8.75		
	40s	50.75 ^b	8.81		
	50s	53.19 ^b	9.52		

* $p < .05$. ** $p < .01$. *** $p < .001$.

3.3 회귀분석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6).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33%를 설명하고 있었다.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삶에 대한 만족도($\beta = .302, p < .001$)였다. 학습참여동기 중에서는 목적지향동기($\beta = .263, p < .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은 학습지향동기($\beta = .209, p < .001$)였으며, 활동지향동기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β
Life satisfaction	.302***
Activity-oriented motivation	.037
Goal-oriented motivation	.263***
Learning-oriented motivation	.209***
F	113.737***
R ²	.330
Adjusted R ²	.327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참여동기 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대학생의 학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참여동기 유형의 총합은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활동지향동기 순이었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를 파악한 다른 연구들[5,32]과 일치하였다. 즉, 사이버대학에 입학한 성인학습자들은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을 통해 취업이나 이직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과 전공 및 수강과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학습지향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이 학습 그 자체에도 의미를 느끼며 배움과 성장의 동기 또한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활동지향동기는 목표지향형이나 학습지향형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활동지향동기는 평생학습기관이나 노인대학을 수강하는 중장년층 이상 여성 성인학습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기[37,38,43]이다. 아마도 60-70대의 성인학습자들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여가나 사교의 동기가 강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활동지향동기는 다른 두 동기 유형과 달리 학업성취나 학습몰입[31],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32].

둘째, 학습참여동기, 삶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에 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성이 목표지향동기와 학습지향동기, 전공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만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13]와 일치하지만, 전공만족도는 어느 전공인가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24],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남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2].

학습참여동기 유형 중 활동지향동기가 가장 높은 집단은 미혼 집단이 유일했다. 이는 기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선행연구는 찾지 못했다. 전공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모두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가정과 학업, 때로는 직장까지 병행해야 하는 기혼 성인학습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50대 학습자는 학습지향동기와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20대는 학습참여동기, 전공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동기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6,10,44].

일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공학과에 따라 학년별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수학 학년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었으나[24], 상대적으로 여성 학습자는 수학 학년이 길어져도 전공만족도가 남학생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수학 학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우가 확인되었다[13,41,44]. 이처럼 사이버 교육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사이버 교육에 관한 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사이버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10].

본 연구 참여자 중 직장인의 비율은 20%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70%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1]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직업이 있는 학습자는 직업이 없는 학습자보다 전공만족도는 높았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유사한 연구에서 직장유무는 학업만족도나 컨텐츠 만족도,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이 없었다[10,45]. 학습참여동기에서는 직장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장인 학습자의 활동지향동기가 무직 학습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는

아니지만, 직장인 성인학습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학습참여동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풀타임 근무자나 무직자에 비해 목표지향성 동기가 높았다[33]. 이는 직장의 유무와 더불어 근무형태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황에서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목적지향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지향동기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삶에 대한 만족도,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순이었다. 이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또한 높았다[38]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 전공만족과 삶의 의미 수준 간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40], 참여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이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39]와도 일치한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학습참여동기가 모두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6],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여동기와 학습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5]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나이와 성별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으며 학습참여동기 영향력은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동기 순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사이버대학생 중 유통물류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연구[46]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활동지향동기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습참여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동기 유형 중에서는 목적지향동기의 영향력이 컸다.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주관적인 행복지수[37]나 삶의 질[36]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교육 만족이나 학교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의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삶에 대

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대 성인 학습자는 전공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추후에는 성인학습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참여자의 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격증이나 학위취득을 통해 구직이나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특성은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학습참여동기가 목표지향동기이며 목표지향동기가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목적지향적 참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역량 습득을 위해 직무능력표준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배움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만족스러운 피드백 제공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진로상담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이버대 학습자는 상당수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제도전함으로써 지속적인 진로모색과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전공만족도의 개념은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22]. 실제로 전공만족도는 진로상담을 통해 향상되었으며[23], 사이버대 재학생이 현장 실습에서 경험하는 전문직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학교요인이었다[20]. 따라서 추후 사이버대 재학생의 전공만족도 연구는 진로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학습만족도 연구로부터 도출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이버대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S. Yun, "Research Trend and Subject of Research Upon Onlin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vol. 8, no. 2, pp. 169-187, 2014.
- [2] J. Y. Ju, A. K. Kang, E. Lim, "A Meta-Analysis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2, no. 2, pp. 145-170, 2016.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6.05.12.2.145>
- [3] S. B. Kim, K. Y.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3, no. 3, pp. 85-107, 2017.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7.08.13.3.85>
- [4] Y. J. Joo, A. K. Chung, S. H. Yi, J.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Time, Environment Management, Teaching Efficacy,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8, no. 4, pp. 53-60, 2011.
- [5] H. Y. Lim, S. M. Lee, "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mong Adult Social Work Students of a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403-415,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403>
- [6] J. Y. Ju, A. K. Kang, E. G. Lim, "A Meta-Analysis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2, no. 2 pp. 145-170, 2016.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6.05.12.2.145>
- [7] Y. J. Joo, A. K. Chung, H. N. Seol, S. H. Yi, "The Prediction of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Cyber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 no. 2, pp. 65-74, 2012.
- [8] C. S. Kim, H. K. Jung, "Learner's Satisfaction Survey and Analysis in the University Cybe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4, no. 6, pp. 1476-1481, 2010.
DOI: <https://doi.org/10.6109/jkiice.2010.14.6.1476>
- [9] K. W. Kim,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oward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vol. 23, no. 1, pp. 111-113, 2015.
- [10] S. H. Lee, "E-Learning Satisfaction- Is It Different from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9, no. 6, pp. 1830-1837, 2008.
- [11] J. H. LEE, S.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Organizational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Community of Practice", *Andragogy Today*, vol. 17, no. 4, pp. 231-251, 2014.

- [12] Zhao Chunjuan, Mei Zongxiang, "A Case Study of Americ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Motivation Difference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 and Learning*, vol. 5, no. 4, pp. 104-112, 2016.
DOI: <https://doi.org/10.5539/jel.v5n4p104>
- [13] S. W. KIM, "Longitudinal study o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ection method based on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1, pp. 189-209, 2014.
- [14] J. S. Park, K. S. Back, B. N.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Guidance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lf-efficacy for Nurs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ulticultural Health*, vol. 10, no. 3 pp. 173-184, 2009.
- [15] M. H. MO,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Cosmetology Majors Participation in Beauty Care Volunteer Activity and Self-esteem on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 17, no. 4, pp. 105-117, 2016.
DOI: <https://doi.org/10.18693/jksba.2016.17.4.105>
- [16] J. Y. Yoon,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9, no. 23, pp. 111-132, 2014.
- [17] Y. J. Song, G. 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12, no. 34 pp. 61-77, 2016.
DOI: <https://doi.org/10.22327/kei.2016.34.4.061>
- [18] E. J. Kang, K. H. Im, J. H. Hahn, "Persona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yles for Student Majoring in Music",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8, no. 2, pp. 21-34, 2010.
- [19] A. S. Park, H. K. Kim,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511-519,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511>
- [20] E. H. Choi, "Factors Influencing on the Field Education Outcomes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elfare in Cyber University and Ordinar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2, pp. 475-485,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12.475>
- [21] S. M. Song, S. R. Lee, "The Convergence Study on Influences of Self-esteem in Adulthood and Attachment to Mother on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in e-learn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167-176, 2016.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6.167>
- [22]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23]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5, pp. 1793-1811,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793>
- [24] J. S. Nam,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Psychological Trait Variables and University Life Trait Variabl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25]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a-A University, 2013.
- [26] G. H. Ja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compromise patterns,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2.
- [27] M. Y. Jang,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majors of their selection, attributional-style,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2005.
- [28] Y. J. Joo, M. J. Jang, H. J. Lee, "An In-depth Analysis of Dropout Factors based on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Experienc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3, no. 3, pp. 209-233, 2007.
- [29] Houle, C. O.,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30] Y. A. Le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type of learning by experie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31] K, B, Jung, "The Effects of Female Adult Learn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6, no. 3, pp. 159-183, 2014.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4.16.3.007>
- [32] J. E. Kwon, Effect of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Self-efficacy and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in Distance Universit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33] H, K, Min, "Impa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learning on learning flow for middle-aged women on national credit bank syste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Welfare Practices*, vol. 8, no. 1, pp. 130-151, 2016.
- [34] J. C. Yoon, S. H. Han, M. S. Park, "Effects of Adults' Participation Motives for Lifelong learning, and their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579-589,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579>
- [35] O. J. Im, J.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er Adults who Join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4, pp. 169-189, 2016.
- [36] E. M. An, J. M. Hurh,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of Middle-Aged Women on Subjective Recognition of Life Qua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1, no. 1, pp. 91-111, 2015.

- [37] M. Y. Kim, H. Kang, “A study of adult learners in the Lifelong Learning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138-146,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138>
- [38] J. S. Kim, W. K. Lim, “An Impact on the Relationship among Elderly’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5, pp. 179-189,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5.179>
- [39] J. S. Jun, T. J. Kim,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vol. 8, no. 2, pp. 55-71, 2013.
- [40] H. S. Kim, O. J. Kim, M. H. Kang, J. Y. Cho,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eaningfulness in Life Among Regional Privat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1, no. 2, pp. 267-282, 2010.
- [41] Y. J. Cha, Relationship of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lifelong education to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wom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1.
- [42]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1985.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43] G. S. Cho, A Study on Developing Learning Organization with Participative Motivation Types in Lifelong Education,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3.
- [44] B. Kim, J. Woo, “The Influence of Lear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Learning Effec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3, pp. 213-219, 2011.
- [45] Y. J. Joo, N. Y. Yoo, H. N. Seol, “Multi-group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in Isolation, Interaction, Content Satisfaction,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5, pp. 525-540,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5.525>
- [46] Y. M. Kim, Y. C. Lee, “A Study on Influences of Learning Motivation to Learning Satisfaction in Distribution and Logistics Education by e-Learning”, *Korean Logistics Review*, vol. 20, no. 5, pp. 268-288, 2010.

곽 윤 정(Yoon-Jung Gwak)

[정회원]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사이버교육, 상담심리

이 지 혜(Ji-Hye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심리